

보광사소식

하안가 백일기도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대웅전

백중기도 입재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백중기도 회향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법당 외부 촛불 공양함 설판접수

보광사 종무소 문의접수 바랍니다.

삼십삼 관음성지 순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불교 교양대 입문반 개강(불교 기초교리강좌)

| 일시 :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2017년 5월 14일 일요일 오후 1시 관음전

불교 교양대 심화반 개강(불교 기본교리강좌)

| 일시 : 2017년 6월 4일 일요일 오후 1시 설법전

불교 교양대 경전반 개강

| 일시 : 2017년 6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보광사 정기법회 안내

| 일요일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설법전

| 신중3일기도 입재 :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10시 설법전

| 인등축원기도 : 매월 음력 보름 오전 10시 대웅전

| 지장재일영가천도기도 :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전

| 관음재일소원성취기도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원통전(관음전)

| 다라니정진기도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8시~11시 설법전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 정진하는 도량 · 부처님 말씀대로 실행 실천하는 도량

보광사 보



| 계간 | 불기 2561(2017)년 5월호

동참문의 : 031-948-7700~1

(계좌번호 : 농협 215066-55-005378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발행인 · 편집인 : 주지 환암 심진 / 발행일 : 불기 2561(2017)년 5월 3일 / 발행처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경기도 파주시 보광로 474번길 87 / 전화 : (031)948-7700 FAX : 031-948-7702

<http://www.bokwangsa.net> / 제작 : 성신문화인쇄(02-468-0127~30)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사월초파일, 우주의 주인공이요, 삼계의 스승이며, 사생의 어버이신 부처님께서 고통의 바다에서 해매이는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몸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을 비추시고 뜻 중생들을 무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실상으로 이끌어 주신 날입니다.

무한한 광명과 천상의 음악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름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은, 탄생하시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발자국씩 걸으시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모든 세상이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명에 덮여 있고 갈애의 속박에 묶여 윤회의 흐름을 알지 못한 채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이 오온의 실상을 알지 못하여 근원적 고뇌에서 벗어날 기약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모든 중생을 미망의 세계,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도다.
모든 세상이 고통 속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무아사상은 인류역사상 초유의 가르침이며, 다른 종교나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까지 인류를 얹매고 있는 신이나 영혼 등의 형이상학적 개념은 인간 내부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자기보호와 자기보존의 본능적 맹목에서 투영된 허구적 관념이요, 거짓된 신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아의 체득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저절로 샘솟으며, 그곳에 인류의 염원인 자유와 평화가 성취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지의 업연으로 갈등과 증오, 폭력과 공포, 혼돈과 무질서가 춤추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한없이 해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기에 부처님 오신 거룩한 날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찬탄하고 각자의 꿈과 희망을 밝히는 연등 앞에서 인류의 가슴 가슴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어 자유와 평화가 깃든 불국토가 실현되기를 기원합시다.

천년 고찰 고령산 보광사
환암 심진 두손모음



“군포교 한국 불교의 미래입니다”

봉사 정신은 가장 낮은 자세로 하심을 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 법 배우고 실행 실천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봉사를 겸하지요. 우리 보광사는 지역 특성상 인근에 군부대가 많습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하여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안정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 주고, 한국 불교에 젊은 기운을 더하는 일요 군법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포교는 조계종 종단 차원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시작한 보광사 군포교는, 2008년부터 군포교지원단을 발족하여 기갑여단 월3회, 특공부대 월2회, 3653부대 월1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중에서 기본적으로 꿀떡을 지원하고 특식으로 빵, 피자, 햄버거 음료 등은 지원단의 모금액과 일부는 각 군법회 담당 봉사자분들의 보시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광사 군법회는 포교국장 진성스님과 각명법사님께서 주관하고 있으며, 진불화 보살님이 군 포교 지원단장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부대별 자원봉사는, 기갑여단에 불교 교양대 40기, 42기 졸업 불자님들이, 특공부대에 41기 졸업 불자님들이, 3653부대에 35기 졸업 불자님들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봉사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많지만 자리이 타를 실천하는 것 또한 수행의 일부라 생각됩니다. 군포교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신도회 고문

- 석현 송도영 합장 -



거사회 상반기 성지순례

우리절 보광사 거사림회는 지난 불기 2561년(2017) 4월 22일 토요일, 상반기 성지순례행사를 봉행

하였습니다. 초봄의 아름다운 날 부처님의 가파를 받아 거사님 23명과 보살님 15명, 총 38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충북 제천에 있는 덕주사와 충북 충주에 있는 중원미륵사지 및 석종사를 순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덕주사에서 사시예불을 마치고 주지스님이신 보림스님의 높은 법문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으며, 중원미륵사지 순례 후 찾아간 곳은 전통사찰의 모습과 청정도량의 위엄을 갖춘 석종사였습니다.

본 행사에 동참한 도반님들끼리 서로 성지순례행사에 참여한 공덕을 회향하며, 하반기 성지순례행사에서도 더 큰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 남능 지인규 합장 -



보광사 군포교지원단

보광사 군포교지원은, 매달 첫째 주에 특공연대, 둘째 주에는 3653부대와 특공연대,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기갑부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봉사자분이 없으시고, 둘째 주에는 보광사 불교 교양대 35기

졸업생분들이 3653부대를, 41기 졸업생분들이 특공연대를, 셋째 주에는 42기 졸업생분들이 기갑부대를, 넷째 주에는 40기 졸업생분들이 기갑부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보광사 군포교지원단에서 특공연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봉사자분들이 없으신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광사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는 그동안 봉사해 오시던 분들을 다른 봉사자분들로 교체가 되었는데 둘째 주 3653부대를 지원하는 봉사자분들은 아직 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불자님들의 관심이 날로 늘어나서 보광사 군포교지원이 날로 발전하고 지속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후원문의 : 군포교지원단장 진불화 010-3785-8862

후원계좌 : 농협 355-

0000-2230-33 (예금주 :
보광사)



진불화 유예정



보광사 풍물단

보광사 풍물단은 지난 정월 보름에 보광사 척사대회 때 화합한마당을 위해 보광사 앞마당에서 보광사 불자님들과 함께 하였고, 부처님 오신 날 보광사 봉축행사 공연 준비로 보광사 풍물단 단원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토요일에 파주 광탄면 분수리에서 경로잔치가 있는데, 이때 보광사 풍물단에서 경로잔치의 흥을 돋우고 원활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파주 보광사 관내 지역 어르신들의 흥겨운 잔치마당을 위해 풍물공연을 열어 보임으로써 어르신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월 2일 금요일에는 수협중앙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치도 위령제에서 보광사 풍물단이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광사 풍물단이 공연을 한 지도 3년이 되어 갑니다. 한해 한해가 갈수록 자매결연을 맺은 치도로 가는 게 기다려지게 됩니다. 갈 때마다 좀 더 나은 행사로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보광사 풍물단 선경화 합장



보광사 자비나눔 봉사단

정원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위한 법회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은 어른신들과 함께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법회를 모십니다.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법회를 모시기 위해 여러 어르신들이 모입니다.



재작년 2015년 7월 보광사 포교국장 소임을 맡고부터 정원요양원 법회를 나가고 있는데, 처음 1년 가까이 저 혼자서 법회를 나가곤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즈음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교양대 40기 심곡난보살님과 공능화보살님, 32기 여래심보살님, 그리고 보문행보살님 등이 함께 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나게 되니 봉사자분들이 사정이 생기면서 한두 분 함께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광사 불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봉사는 결코 남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봉사는 불교의 훌륭한 수행덕목입니다. 불교적 시각에서 봉사는 곧 자신이 부처가 되는 행위요, 봉사 자체가 부처 행입니다.

보광사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발원해 봅니다.

보광사 교양대 40기 성지순례

만물이 소생하는 춘3월에 보광사 교양대 40기 졸업생 법우님들과 함께 제주도로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 도착한 제주도는 정겹고 이국적인 풍경이 물씬 풍겨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한라산 기슭 중턱 신비로운 명당에 자리하고 있는 관음사였습니다. 1912년 비구 봉려관 스님이 창건하였으며, 1948년 제주사건으로 전소되었다가 1968년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3 교구 본사로 도내 40여개 사찰을 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56억년 후에 오신다는 미륵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서귀포 약천사였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적광전은 지상 5층 통충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당에는 18,000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야자나무와 하귤나무와 어우러져 멋진 사찰에 운치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유채꽃밭을 지나 도착한 산방사의 큰법당 앞에는 넓음의 끝이 어딘지 모를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양도, 이중섭 거리 등 명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제주도를 떠나 돌아오는 길은 더없이 행복하였습니다.



보광사 교양대 40기
도원 이건훈 합장

교양대 41기, 42기 성지순례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처럼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여 보광사 불교 교양대학 41기, 42기 졸업생들이 보광사 포교국장 진성스님과 함께 보광사의 본사인 봉선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는, 500여 년 전 1469년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선왕의 위엄을 기리고 능침을 보호하기 위해 운악사라 했던 이 절을 크게 중창하고 봉선사로 고쳐 부르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봉선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봉선사는 한국전쟁으로 사찰전체가 불타버려 현재는 오래된 사찰건물은 남아 있지 않고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중건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삼신각과 범종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동종인 범종과 비로자나괘불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선사의 대웅전에는 현판이 대웅전이라 하지 않고 불교 대중화에 앞장 선 운허큰스님의 뜻을 살려 ‘큰법당’이라 쓰여 있는 건물입니다.

봉선사 사찰 안으로 들어서니 스님과 봉사하시는 보살님들이 반갑게 우리

를 맞이하여 주셨고 본사 봉선사의 배려로 청풍루에서 우리들만의 예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로 된 사시예불을 마치고 진성스님은 운허큰스님의 불교 경전의 한글 번역화 작업의 일환인 우리 말 반야심경이 얼마나 잘 번역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사 봉선사의 배려로 미리 따로 공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 아주 편안하고 맛있게 공양을 할 수 있었고, 공양 후 진성스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봉선사 경내 곳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찰안내를 마치고 청풍루에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성지순례의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수행을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 두었던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물러남이 없는 정진수행을 다짐해 봅니다.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불자님들이 세세생생의 무량공덕을 쌓고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보광사 교양대 42기 회장 혜일 이철원 합장

보광사 교양대 43기 수계식 및 졸업식

2017년 03월 26일 주지스님을 모시고 교육담당이신 남수스님 주재 하에 진성스님, 신도회장님, 선배 도반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축하 속

에 성대히 졸업을 하였습니다.



43기 도반님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모두가 행복한 자축을 하며, 졸업식을 위해 애써주시고 배려해 주신 주지 스님, 교육담당 총무국장 스님, 포교국장 스님, 신도



회장님 그리고 선배 도반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43기는 지난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광사의 가족이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도반들이 되고자 마음을 다져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의 하나인 여주 신륵사로의 성지순례 시 부처님의 존엄하신 불심을 자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열과 성을 다 하시던 스님의 모습, 스님 뒤를 병아리 떼처럼 따라다니며 하나하나 배워나가던 지난 시간들이 새삼 그리워집니다.

저희 43기 도반들은 열심히 불심을 키우며 참선, 수행, 봉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행하며 부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선배 도반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광사 불교 교양대학 43기 회장
보덕수 이정선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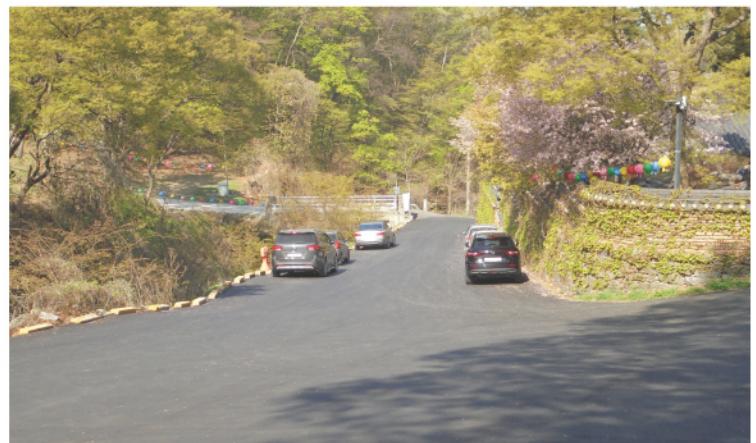
보광사 후문 주차장 포장 불사

그동안 보광사 후문 주차장의 바닥이 너무 노후되어 주차장 노면이 고르지 못하였습니다. 주차장 바닥 노면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여러 보광사 불자님들이 주차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곤 하였는데 이번에 종신 최은환 거사님이 아스팔트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보광사 불자님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주차장 포장을 한 시기도 아주 적절하게 봉축행사 있기 전에 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편안함을 제공해 주신 종신 최은환 거사님께 감사하며, 이차인연 공덕으로 하시는 일 모두 원만성취하시고 부처님 되시는 그날까지 수행정진에 장애가 없으시기 발원합니다.

보광사 사부대중 일동



설법전 원불봉안 설판 모연



법화경 방편품에 나와 있듯이, 보광사 불자님들께서 설법전 원불을 봉안함으로써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보광사에서는 설법전 원불을 봉안할 수 있는 원불 봉안 설판 모연합니다.

문의 : 보광사 종무소 031-948-7700~1

법당 외부 촛불 공양함 설판 모연

캄캄한 밤에 들불을 켜면 그 방속에 쌓여있던
백 년 동안의 어둠은 일시에 사라진다.
- 화엄경 -

화엄경에 나와 있듯이 보광사 불자님들께서 촛불을 밝힘으로써 어둠이 일시에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촛불을 밝힐 수 있는 촛불 공양함 설판 모연합니다. 설판자 생년 이름 올려드립니다. 각 법당이 목재 문화재인 관계로 부득이 외부에 촛불 공양함을 제작합니다.

문의 : 보광사 종무소 031-948-7700~1



우리안경, 아이피아

신체 중 노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이 눈입니다. 자외선과 핸드폰의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주세요. 보광사 신도님들과 여러 불자님들 다른 매장보다 질 좋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해 드림으로써 마음에 흡족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장은 성남점 오리역 4번 출구 농협 하나로클럽 1층에 '우리안경', 잠실점 홈플러스 지하1층에 '아이피아'라는 상호로 두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남점 우리안경 031-713-2662



김순희 안경사 두 손 모음



잠실점 아이피아 02-416-2662

황재 코다리 냉면

TV에 나온 의정부 최고의 맛집
황재 코다리냉면, 코다리보쌈
황재 코다리냉면은 3대째 내려
오는 함경남도 단천지방의 비법
과 최상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답
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보광
사 불교 교양대 41기 선승화 한
명애 보살님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광사 신도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합니다.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38지번의정부3동 96-9



선승화 한명애



황재 코다리 냉면 031-874-3535

종로떡집

종로떡집은 종로떡방앗간이라는 상호로 지금까지 보광사의 초하루 법회,
보름법회, 지장재일, 49재, 기제사, 합동차례 등 거의 모든 행사에
사용되는 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법당에 꿀떡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요양원 어르신 법회에는 술떡 등을 보시하고 있습니다.



삼광 강성모 합장



종로떡집 031-947-0064

정원종합복지원

사랑을 함께하는 따뜻한 이웃, 저희 정원노인요양원,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는 꽉 막힌 도심이 아닌 자연과 함께 어울어져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면회하시며, 소풍을 나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르신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마다 보광사의 포교국장 스님을 모시고 어르신들과 함께 법회 및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 입소상담문의

정원노인요양원 031-942-8887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031-943-7001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 200번길 32-83



보광사보 광고 및 후원금을 모연합니다.

「보광사보」는 사중의 모든 행사와 신도님들의 활동 등의 소식을싣고 있습니다. 보광사에서는 사보 발간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광고 및 후원금을 모연합니다.

보시 중에서도 최고의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영원불멸의 진리를 심어주어, 궁극에는 성불의 길로 인도해주는 위신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화포교 불사이기도 한 법보시 불사에 적극 동참하시어 무량한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광사 사보 법보시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 | | |
|--------|--------------------------|
| - 500부 | 주지 환암심진 스님 |
| - 250부 | 총무 남수 스님 |
| - 125부 | 황재코다리냉면 |
| - 125부 | 종로떡집 |
| - 125부 | 우리안경원, 아이피아 |
| - 125부 | 정원종합복지원 |
| - 125부 | 원담 안병현 거사님 |
| - 125부 | 최종서 거사님
(보덕심보살님의 아드님) |
| - 375부 | 보광사 풍물단 |
| - 125부 | 보광사 교양대 41기 일동 |

문 의 : 보광사 종무소, 031-948-7700~1

후원계좌 : 농협 355-0047-2978-53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